

보성군, 읍면동장 현장행정평가대상

조성면, '보성600'사업에 34개 마을 신청

유흥지 및 입구 도로변 특색있는 마을 가꾸기

보성군은 지난 27일 전라남도 주관 '2020년 읍면동장 현장행정 평가'에서 조성면이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보성군 조성면은 행정과 주민 그리고 유관기관이 연계하여 지역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등 자

치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행정 체계 확립에 앞장서왔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조성면 농어촌 공중목욕장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발적인 목욕장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한 절차와 협의를 통해 주민들

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통합에 기여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과 불필요한 예산절감 등을 실현하였다.

특히, 조성면은 보성군이 2020년 군정시책으로 실시한 '우리 동네 우리가 가꾸는 보성600'사업에 38개의 자연마을 중 34개의 마을이 신청하여 12개 읍·면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각 마을별 유흥지 및 입구 도로변 등을 특색 있게 가꾸어 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보성600 사업은 깨끗한 보성군 이미지 제고와 다시 찾고 싶은 동네 만들기 일환으로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인 참여와 더불어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이다.

순말이 조성면장은 "현장행정을 펼침에 있어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주민들에게 먼저 설명드리고 협의를 거쳐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주민주도형 자치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기자

보성600사업으로 조성면 매현리 덕촌마을 주민들이 참여하여 벽화를 완성하였다



화양면민회관에 들어선 '화양열린 공립 작은도서관' 내부 모습.

여수시, 꿈을 키우는 공립 작은도서관

"공공시설, 아파트 유흥공간 작은도서관으로 거듭나"

여수시가 공공시설과 아파트 유흥 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공립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2월 1일부터 새롭게 문을 연다.

시에 따르면 '꿈을키우는'(미평동 선경3차A)·'청솔글누리'(돌산읍 청솔2차A)·'화양열린'(화양면 화양면민회관)·'여문늘빛'(여서동 '구' 중부보건지소) 4개 공립 작은도서관이 개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열람은 좌석의 30%만 이용하도록 부분 개관한다.

도서대출은 도서관회원증을 지참해야 하며, 1인당 5권을 14일간 대출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에서 모바일 도서관 회원증 발급도 가능하다.

특히 원하는 책이 없을 경우 시립도서관(이순신·쌍봉·환경·돌산·소라·울촌/현암 휴관) 내 다른 도서관에서 배달 받아 빌려볼 수 있는 자료공유 이용서비스도 제공한다.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되면 독서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기증유물 수증평가

100여 점의 고흥 관련 생활민속유물 전시 활용



고흥군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은 유구한 고흥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보존하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재 기증운동을 전개하였고, 2020년 한 해 동안 기증해주신 소중한 기증유물 100여점에 대한 '기증유물 수증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2020년에 기증된 유물은 고문서와 도자기를 중심으로 삼국시대 토기부터 근현대생활민속 유물까지 시대를 막론하고 다양한 유물들이 기증되었

으며, 관련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진위와 전시가능 여부, 학술적 가치 등 다방면에서 평가검증을 거쳤다.

평가를 통해 드러난 대표유물은 토지매매증서, 축산업, 어업허가신청서, 도자기로 제작한 희존(犧尊)편 등 당시 고흥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다수의 유물들이 확인되었다.

이들 자료는 고흥군민들의 생활문화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료로서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기증전시 및 연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고흥군에서는 기증자를 위해 "관람료 감면, 기증자 현판등록, 기증증서 및 기증자증 발급, 기증자료집 제작, 기증유물 전시" 등 기증자에게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추고 있다.

기동취재본부김택영기자

순천시, 국토부 '교통문화지수평가' 전남 1위

5대 과제 64개 사업 선정, 인구정책 투트랙 본격 가동

순천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2020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전남 1위, 전국에서는 3위를 차지했다.

교통문화지수란 국토교통부가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인구기준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및 문화수준을 조사해 지수화한 수치로, 이번 평가는 조사대상 인구 30만 미만의 4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이다.

순천시는 이번 평가 결과에서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 방화지시등 점등률, 안전띠 착용률 등 운전행태와 지자체 교통안전 전문성 확보, 지역교통안전정책 이행 정도 등 교통안전 실태에서 A등급으로 우수한 결과를 받아 성숙된 시민의식과 순천시의 노력이 높이 평가되었다.

반면 운전자의 신호 준수율, 횡단중 스마트폰기 사용률 등 보행행태 및 도로연장 당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 등 교통사고 발생정도에서 C등급 평가로 다소 저조한 평가결과를 받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순천시는 지난해 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내일원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유지보수,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 ITS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첨단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시민안전 도로방범 CCTV와 교통신호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광양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확정

5대 과제 64개 사업 선정, 인구정책 투트랙 본격 가동

광양시가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3년 차를 맞이해 올해는 '인구 유입과 유지'를 목표로 인구정책을 투트랙 방향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정책성과 평가와 인구영향 검토를 통한 전문가 자문 등으로 시책 추진의 내실을 기하고, 광양형 특화 전략을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일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전략별 인구정책 방향을 구체화해 5대 과제 64개 사업을 선정하고 본격 추진한다.

분야별로 △생활하기 편한 정주 기반 확충(12개 사업)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돌봄체계 구축(20개 사업) △청년층 경제적 자립 지원(20개 사업) △활력 넘치는 노후 생활 지속(8개 사업) △지역사회와 함께 인구변화 대응(4개 사업) 등을 계획했다.

'생활하기 편한 정주기반 확충' 분야는 고품격 아파트 건립,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미세먼지 저감

시설 조성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돌봄 체계 구축' 분야는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 출산 지원과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지원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빈틈없는 돌봄체계와 교육환경개선 여건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여성 새로일하기 사업,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등 평등한 양육 환경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층 경제적 자립 지원' 분야는 광양시 청년꿈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청년 소모임 활동지원사업, 청년활동가 양성 등 맞춤형 사업과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주거안정 지원사업, 포스코 그룹 취업아카데미 운영, 청년 구직활동수당,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을 펼친다.

기동취재본부김택영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